

광주FC, '금호고 F4' 네 꿈을 펼쳐라



'FW' 주영재

1대 1 돌파·빠른 스피드·크로스 장점
특점력에 협업 플레이에도 강점
2019년 U-17 국내훈련 소집되기도



'GK' 신승훈

U-17 월드컵 팀 주장...8강 견인
각종 대회 '골키퍼상' 독차지
차세대 '대한민국 거미손' 꼽혀



'FW' 임지성

폭발적 스피드·저돌적 드리블 눈길
2019 U18 챔피언십 영플레이어상
주니어 대회 득점왕 휩쓸며 기대감



'FW' 장동찬

빠른 스피드·정확한 크로스 장점
왕성한 활동량...측면 수비도 소화
지난해 U리그 8권역 우승 주역

프로축구 광주FC가 2021시즌을 위해 '금호고 젊은 피'를 수혈했다.
광주는 12일 광주 U-18 금호고 출신의 장동찬(FW·20·울산대)과 졸업 예정인 임지성(FW·18), 신승훈(GK·18), 주영재(FW·18) 등 4명의 우선지명 선수를 프로 무대로 불러들였다.
우선지명 4인방 중 '말형'인 장동찬(181cm·73kg)은 빠른 스피드와 정확한 크로스가 장점인 측면 공격수다.
왕성한 활동량을 자랑하는 그는 적극적인 수비 부담으로 측면 수비까지 소화한다.
장동찬은 금호고 시절인 2016년과 2017년 백

운기 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 2연패에 일조했으며, 2018 제73회 전국고교축구선수권대회 우승 주역이기도 하다.
이후 울산대에 진학해 2020년 U리그 8권역 우승을 이끄는 등 맹활약했다.
임지성과 신승훈은 FIFA U-17 월드컵 8강 멤버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었다.
177cm·69kg의 날렵한 체격의 임지성은 폭발적인 스피드와 저돌적인 드리블 돌파가 장점이다.
금호고가 우승을 이뤘던 2019 전국 고등학교 왕중왕전 4강전에서는 '손흥민의 원더골'과 꼭 닮은 약 80m의 질주의 골을 장식하면서 축구팬들

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2019 K리그 U18 챔피언십 우승의 주역으로 베스트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한 임지성은 2020 제41회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득점왕(9골), 2020 K리그 U18 챔피언십 득점상(5골), 2020 K리그 주니어 B조 득점상(9골) 및 최우수 선수상 등을 휩쓸며 광주의 '셋발'로 기대를 받고 있다.
연령별 대표로도 활약을 이어오고 있다. FIFA U-17 월드컵 5경기에 출장해 대한민국의 8강 진출에 이바지했고, 지난해 U-19 대표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신승훈은 180cm·80kg로 골키퍼로서는 작은

체격이지만 동물적인 반사신경을 앞세워 슈퍼세 이브를 선보이는 '괴물 골키퍼'다.
2016년 AFC U-14 동아시아지역 페스티벌에서 첫 태극마크를 단 신승훈은 이듬해 U-17 대표팀에 소집, FIFA U-17 월드컵에서 팀의 주장을 맡아 그라운드 안에서 활약하며 한국의 8강 진출을 이끌었다.
최근에는 U-19 대표팀에 발탁돼 국내훈련을 소화했다. 또한 2018 제73회 전국고교축구선수권대회, 2019 K리그 U18 챔피언십, 2019 전국 고등학교 왕중왕전, 2020 K리그 주니어(B조) 등 각종 대회에서 '골키퍼상'을 독차지하면서 광주는

물론 대한민국의 골문을 지킬 인재로 손꼽힌다.
181cm·73kg의 체격을 지닌 측면 공격수 주영재는 1대 1 돌파와 스피드, 크로스가 뛰어나다.
특점력까지 두루 갖췄으며, 동료들을 활용한 이타적인 플레이에도 강점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9년 4월에는 U-17 대표팀 2차 국내훈련에 소집되기도 했다.
우선 지명 4인방은 "유스 시절부터 꿈꿔왔던 프로 무대, 가슴이 벅차지만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신인의 자세로 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

전남드래곤즈, 중원·수비 강화

미드필더 장성재·수비수 김태현 영입

전남드래곤즈가 수원FC 승격에 일조한 미드필더 장성재와 안산그리너스에서 활약한 수비수 김태현을 영입했다.
서울 언남고 출신인 장성재는 2016년 모교 고려대의 U리그 왕중왕전 우승을 이끈 뒤 2017년 울산에 입단했다.
2018년 여름 수원FC로 이적한 그는 이내 팀의 주전급 선수로 성장했다. 2019시즌부터 2선과 3선을 오가며 2시즌 동안 리그 51경기에 출전해 1득점 3도움을 기록했다.
넓은 시야와 창의적인 패스를 앞세운 장성재는 중원에서의 경기 조율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다. 패스와 드리블, 볼 키핑 등 탄탄한 기본기에 많은 활동량을 더해 공수에서 모두 활약을 기대된다.
장성재는 중원이 약점으로 꼽혔던 전남이 눈여겨보던 자원이었다. 전남은 적지 않은 FA 보상을 투자해 중원을 강화했다.
울산 소속이었던 2017년 전남을 상대로 프로 데뷔전을 치렀던 장성재는 "전남이라는 팀에 오게 돼 영광이다. 지난 시즌 수원FC에서 뛰면서 전남이 가장 상대하기 힘든 팀이었다. 그만큼 이 팀의 전력이 좋다고 생각했고, 이제는 그 일환으로 팀에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태현은 사이드백으로 공격에서 특히 강점을 보이는 등 다양한 포지션 소화가 가능한 전천후 자원이다. 서울 중동고와 용인대를 거쳐 2018년 안산에



장성재

김태현

서 프로에 데뷔한 김태현은 2019년 서울이랜드에서도 활약하는 등 3시즌 동안 54경기에 나와 2골 3도움을 기록했다.
위협적인 슈팅과 날카로운 크로스를 보유한 김태현은 탈압박을 통한 측면 공격 플레이에 활기를 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수비수답게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한 대인 수비와 커버 플레이도 탁월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플레이로 상대의 흐름을 끊는 부분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는다.
김태현은 "작년에 K리그2에서 전남을 만났을 때 상대하기 어렵고 두려운 팀이었다. 그런 팀에 오게 되어 기쁘고,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다. 매 경기 투쟁심 있고 다부진 플레이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2021시즌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손흥민, 골 사냥 나선다

내일 풀럼전 선발...리그 득점 1위 살라와 1골 차

'유럽 무대 통산 150골'과 '토트넘 100호골'을 달성하며 '기록의 사나이'로 거듭난 손흥민(토트넘)이 2016-2017시즌 작성한 '한 시즌 최다골'(리그 14골·시즌 21골) 경신을 향해 다시 재검증을 나선다.
손흥민은 한국시간으로 14일 오전 5시 15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풀럼을 상대로 2020-2021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16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토트넘은 애초 14일 애스턴 빌라와 EPL 18라운드 원정을 치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애스턴 빌라 선수와 직원 다수가 코로나 19에 걸리면서 EPL 사무국은 일정 조정에 나섰

고,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던 풀럼과 16라운드 경기를 대신 열기로 했다.
상대가 바뀌었지만 뜨겁게 달구진 손흥민의 발끝 감각은 쉽게 식지 않을 태세다.
손흥민은 11일 치러진 8부리그 마린FC와 FA 컵 64강전을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며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
손흥민은 2020-2021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토트넘이 치른 16경기에 모두 선발로 출전해 12골(5도움)의 맹활약을 펼치며 득점랭킹 2위를 달리고 있다. 선두 무함마드 살라(리버풀·13골)와는 1골차다.
2020-2021시즌 EPL이 22경기나 남은 상태에

서 손흥민은 지난 시즌 정규리그 득점(11골)을 넘어선 상태다. 여기에 리그컵(1골)과 유로파리그 득점(3골·예선전 1골 포함)까지 합치면 손흥민의 이번 시즌 총 득점은 16골이나 된다.
손흥민의 유럽 무대 한 시즌 최다 득점은 2016-2017시즌 총 47경기를 뛰면서 작성한 21골(EPL 14골·FA컵 6골·UEFA 대항전 1골)이다. 이번 시즌 25경기를 치르면서 16골을 쏟아낸 손흥민은 자신의 한 시즌 최다골 기록에 5골 차로 근접했다.
손흥민이 14일 상대하는 풀럼은 이번 시즌 2승(5무8패) 밖에 내지 못하며 강등권(18위)으로 밀려났다. 풀럼은 이번 시즌 15경기를 치르는 동안 13득점(경기당 0.87골)에 그치면서 23골(경기당 1.53실점)이나 내렸다. 손흥민이 혼자 정규리그에서 12골을 쏟아낸 것과 비교하면 풀럼의 공격력은 크게 떨어지고, 뒷문 단속도 허술하다. 지금까지 손흥민은 풀럼과 1차례 맞붙었다. 2016-2017시즌 FA컵 16강전에서 풀럼과 대결한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연합뉴스

KIA 외국인 3인방 시즌 준비

터커·멥텐 18일·브룩스 22일 입국...다음달부터 스프링캠프 참가

KIA 타이거즈의 외국인 선수들이 2021시즌을 위해 결집을 재촉한다.
'KIA 3년 차' 프레스턴 터커와 '신입 외국인 선수' 다니얼 멥텐이 18일 한국으로 들어온다.
이어 22일에는 지난 시즌 팀의 에이스로 활약한

애런 브룩스가 입국해 2021시즌 준비에 나선다.
이들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서 따라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거치게 된다.
KIA는 광주 인근에 외국인 선수들의 숙소를 마련해 큰 불편 없이 2주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들은 자가격리기간이 끝나면 2월 1일부터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와 함평 챔피언스 필드에서 진행되는 KIA의 스프링캠프에 참가해 본격적으로 2021시즌 준비에 나선다.
한편 마루리캠프를 직접 지휘한 뒤 미국으로 돌아갔던 멥텐 감독은 지난 7일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다.
한국에 잔류했던 워터마이어 수석코치는 지난 4일부터 함평 챔피언스필드에서 신인·군 제대 선수들의 훈련을 지휘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